



2년간 땀으로 그린

용당동 벽화전시회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들이 2년에 걸쳐 그린 벽화로 전시회를 열어 화제다.

벽화전이 열리는 곳은 용당동 유엔 평화로 125번길 일원. '용당동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마을 담장을 수놓은 벽화들이 200여m에 이른다. 이들 벽화는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전공한 용당동 주민센터의 배찬도 주무관과 화가 정미연 씨가 그림 도안을 하고 부녀회, 학부모·청소년들로 구성된 1365 봉사회가 색을 입혔다. 벽화작업은 단순히 동네를 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표정까지 밝게 만들었다.

배 주무관은 "한여름에는 학생들과 함께 더위와 햇빛에 얼굴이 까맣게 타면서도 그림을 꼼꼼하게 그려 벽을 채우고 나면 그동안 무관심하던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응원을 보내줬다"고 말했다.

평소 개인전 등 꾸준히 미술 작품활동을 가진 배 주무관이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 힘겹게 완성한 벽화를 그냥 두는 것이 아까워 '우주주의 벽화전'이란 명칭을 붙이고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 **김옥련 명예기자**

대연동 못골꽃묵시장에 가면 '호떡 외길' 25년의 '호떡 명인'을 만날 수 있다. 세월이 녹아든 맛도 맛이거니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동안 호떡 값 500원을 고수하고 있어 화제다.

못골호떡을 운영하는 우선자(63)씨는 "19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지금껏 500원을 받고 있다"며 "이문은 안 남아도 수 십 년 단골에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라 호떡 값을 안 올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우씨의 호떡 맛은 값에 반비례 한다. 우씨는 매일 새벽 4시께 하루 팔 분량의 찹쌀과 1등급 밀가루 등 신선한 재료로 반죽을 한다. 찹쌀 반죽에 100% 콩기름에 튀겨 호떡이 두툼하고 쫄깃하다. 특히 설렁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구 끝에 땅콩과 견과류를 볶은 뒤 갈아 흑설탕과 버무려 '맛, 건강, 편리함'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중독성 있는 호떡 맛을 못 잊어 꼬마 손님이 군인이 돼 찾아오거나 멀리 외지에서 차를 타고 와 주차장에 세워놓고 호떡을 사가는 이들도 많다. 이사 간 자녀들이 이 집 호떡 맛을 그리워 해 부모들이 냉동으로 먼 곳으로 부쳐주는 경우도 있고 일소문이 멀리 해외에까지 퍼져 가이드가 일본 관광객을 단체로 데려오기도 한다.

외환위기 때는 학비를 벌기 위해 호떡집을 해보겠다고 찾아온 대학생들에게 반죽을 대주고 리어카도 마련해 줘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돕기도 했다. 어엿한 직장인으로 자리잡은 뒤 고맙다며 찾아와 인사할



못골시장 '못골호떡' 우선자씨

한평 남짓 가게에서 25년 장사

맛에 반해 외국 관광객도 발길

때의 뿌듯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데 저 혼자 호떡 값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못 올리지요."

500원 호떡 만으로는 수지가 안 맞는지 우씨는 10년 전부터 핫도그도 만들어 팔고 있다. 작은 간식거리지만 어떻게 하면 몸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근과 시금치를 넣은 특제 반죽을 고안하기도 했다. 한 평 남짓한 비좁은 가게는 장문이 없어 겨울철에는 관창지만 한여름에는 찜뚱으로 변해 한 달 가량 휴업을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명물호떡으로 소문나고 호떡 먹으러 멀리서 손님들이 찾아와 자연스럽게 못골시장으로 이어져 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을 준 것 같다"는 우 씨는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할 때가 돈 버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말했다.

주영란 명예기자

■ 두 남자의 금연 성공기

‘작심3일’ 버티면 ‘작심30년’도 가능

결정적 금연 계기 만들 것

일주일 참으면 절반의 성공

참기 힘들면 니코틴 패치 의존

씨가 재앙이 될 뻔 했다.

10여 년 전에 담배를 끊은 홍씨는 '금연'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강조한다. 딱 3일만 끊어보라고, 그 3일을 버티면 그 다음 7일, 이렇게 일주일을 끊으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금연 노하우다. 손이 떨리고 정서적인 공황 등 급단 현상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탕을 먹거나 온다. 양치질을 하기도 했단다. 그런 것들도 소용없을 땐 니코틴 파스를 붙여가며 금연과의 한 판 승부를 하고 나면 끊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레이안산악회 간부인 김병동씨도 25년 넘게 피우던 담배를 몇 년 전에 끊었다. 많은 산악회 회원 중 유일하게 담배를 피우려 다니던 것이 담배를 끊게 된 계라고 한다. 게다가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



보건복지부 금연 포스터

을 받고 3개월 만에 돌아가신 것도 금연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김씨는 보건소 금연 클리닉의 상담을 받아서인지 어렵지 않게 끊은 편이다. 금연 클리닉에서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 등의 도움을 받은 데다 나는 담배를 끊는다'라는 자기 최면을 계속 걸다보니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박능숙 명예기자**

꽃보다 아름다운 한국

왕단단 명예기자의 '무지개빛' 유학생활

중국 하얼빈시에서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을 받기 위해 한국에 온 지 14개월 남짓 되었다. 중국에서 꽤 오랫동안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익혔고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잠시 한국을 경험했지만 현실에서의 유학생활은 좌충우돌 그 자체였다. 14개월 한국 유학생활을 색깔로 표현하면 이렇다.

우선 열정의 빨강이다. 백문불여일견이란 표현이 딱 맞다. 중국에서 한국어 선생님께서 "한국에서는 야구가 인기 많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한국에 와서 이 말의 의미를 피부로 느꼈다. 야구는 그야말로 국민 스포츠였다. 프로야구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

춰 놀랐다. 야구팬들은 선수들을 향해 노래로 응원하고 환호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심동체로 움직일 수 있을까. 한국인은 공동체의식이 강한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야구장이 그 증거였다.

다음은 남색을 가진 투명이다. 무슨 말이고 하니 바로 한국의 술 문화다. 한국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대학생은 없는 것 같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돼 동아리 선배들과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중국에 있었을 때 이런 술자리가 드물어 술을 거의 안 마셨다. 그런데 어느 선배가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술을 마시자고 제의했다. 게임에 능하지

못해서 결국 소주를 한 잔, 두 잔, 일곱 잔까지 마셨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신 것은 처음이다. 그날 이후 진짜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싶지 않았다.

셋째, 그리움 가득한 검정이다. 이번 유학생활을 통해 그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특히 밤의 장막이 깃들 때마다 너무 외롭고 부모님이 보고 싶었다. 예전에 싫어했던 어머니의 잔소리를 다시 듣고 싶고 어머니가 만든 음식도 먹고 싶다. 부모님께 전화할 때 좋은 소식만 알려드리고 힘든 일은 혼자 참고 극복했다. 전화를 끊고 항상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끝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순결한 하늘색이다. 책에서 본 대로 푸른 하늘, 맑은 바다, 아트막한 산 등 유학생활을 통해 자연 경치와 민속촌, 경복궁 등 역사 향기를 맡을 수 있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다양한 벽화가 좋고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실컷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 오륙도의 기암절경도 만끽했다. 이런 순결한 아름다움에 정말 흠뻑 취했다.

이런 매력이 있는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색감을 뽐내는 한국은 꽃보다 아름답다.

왕단단 명예기자

신축 본관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등 볼 만

초등생 두 아들을 둔 김혜진(문현동)씨는 아이들 방학기간이 죽을 맛이다. 뒤처 다개리는 물론 알찬 방학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김 씨는 체험도 하고 나들이도 할만한 장소를 찾다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곳으로 문현금융 단지를 발견했다.

금융기관들이 업무 공간을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무료 문화체험공간을 함께 꾸며줬다.

최근 문을 연 부산은행 신축 본관이 가장 주목을 끈다. 1층에 377㎡(114평)의 금융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최초의 금융역사관이라고 한다. 은행 소개 외에도 아이들에게 금융과 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금융경제체험관은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금융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놓았다. 지폐 속의 명화에 대한 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코너도 흥미롭다. 아이들이 금융에 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층 로비 안쪽으로 향토기업들이 생산한 우수한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한 멀티미디어로 재미있게 알리는 기업홍보관도 마련돼 있다. 부·울·경 지역 경제와 향토기업 역사, 지역 기업 소개·제품 전시 코너, 지역 제품을 소재로 한 게임&엔터테인먼트 코너,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다.



금융역사관 옆에 BS아트갤러리라는 아담한 미술 전시장에는 3월 5일까지 부산은행이 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수집한 미술작품 2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부산은행 본관 건물 맞은편 한국은행 부산본부 1층에도 화폐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다. 관람객에게 미완성 동전을 기념품으로 주는데 이를 주화 압입기에 넣고 돌리면 동전에 문양이 새겨진다.

■부산은행 금융역사관 개관은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단체 관람은 사전 예약해야 한다. 주차 가능. ☎661-4814.

■한국은행 부산본부 화폐전시관 개관은 오전 10시~오후 4시, 주말·공휴일 휴관. 주차 가능. ☎240-3809

최현숙 명예기자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환경관리지도사1급 과정」수강생 모집

미래를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

환경관리지도사1급 과정 제2기 수강생 모집 안내

- 강의기간 : 2015년 3월 4일(수)~5월 20일(수)(12주)
- 수강료 : 300,000원(자격증비 및 교재비 2만원 별도)
- 접수장소 :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실
- 문의처 : 행정실 ☎(051)663-5311~6
- 등록방법 : 방문 및 전화접수(2015년 3월 3일까지)
- 입금계좌 : 부산은행 036-01-032467-0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총장 수료증 수여 (과정 이수자 중 80% 이상 출석시)

환경관리지도사1급 자격증 (민간 자격관리기관 : 국제리더관리협회 발급)

강좌명	모집인원	수강료	교육기간(12주)	강의시간(수요일 미간)
환경관리지도사1급과정	30	30만 원	3월 4일~5월 20일	18:30~21:30

정부 환경교육 조기 실시, 환경 감시·감사 참여와 정부 일자리 창출 참여 가능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

낮 시간동안 가족처럼 돌봐드립니다

- ▶방문요양서비스 :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에서 어르신 신체수발, 가사활동 등을 도와드립니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복지관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에 계시는 어르신을 센터로 모시고 와 낮 동안 보호해드립니다. (점심 및 간식제공, 건강체크, 인지활동, 미술치료, 나들이 등)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유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유호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상담 : ☎628-6737~9

국가공인 자격증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 학력, 경력, 남녀 성별, 나이, 제한 없음 *총 300시간 이수
- 교육비, 실습비, 교재비 등 총85만원(국가자격증 취득 시 까지)
- 정년 없는 평생직업 장례지도사!!!
- 한시적 무시험 국가자격증 취득 기회!!!

하늘오름 협동조합(부설) 부산장례지도사 교육원

지하철 2호선 대연역 1번 출구 옆 월서코리아빌딩 3층

☎상담문의 051-932-2313 / 010-6558-2313

어머니 중·고등 학생 모집

중학교는 수업료 및 교과서 국비지원

-1년 3학기제로 2년이면 졸업 후 상급학교 진학-

- 대상 -성인여성 누구나
- 모집인원 -중2학급(90명), 고2학급(90명)
- 접수기간 -2014년 10월 1일부터 선착순모집
- 특전 -1. 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 국고지원(중학교 과정)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배움에 나이가 있나오?

어머니 중·고등학교로 오세요~

1. 수업료 전액 및 교과서 국고지원(중학교 과정)
2. 미용사 면허증 발급(고등학교 과정)
3. 통학버스 무료운행(서면 전월령, 10분 거리 위치)
4. 국·영·수·한문·컴퓨터 등 기초부터 쉽게
5. 교육부 인가 정규 중·고등학교 졸업장 수여
6. 중·고 중퇴자 편입가능, 중퇴당시 학력인정 최단시일내 중·고 졸업가능함

부산미용고등학교 병설 성인중·고등학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강순원로 119번길)

문의전화 (051)805-6134

검색창에 **부산미용병설중고등학교**로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bam.hs.kr

2012년~2015년 부산시 인증평가 우수 시설

구세군 부산요양원

인소안내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 2, 3, 4, 5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단 3-5 등급 시설급여 판정 받으신분)

서비스 안내

- 의료서비스 : 집중간호, 건강검진, 촉탁의 진료
- 협약병원 : 서호병원, 그린한의원
- 여가 서비스 : 계절별 나들이, 경로잔치, 야외 프로그램
- 물리, 작업치료 서비스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부모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051)623-3323 부산시 남구 용소로 7번길 105번지

경성대·부경대역 1번출구 여성회관 뒤(도보 10분)